



〈권두언〉

백화제방(百花齊放)의 다문화사회로…

제3회 충남여성정책개발원·현대민족학회 공동학술회의 발제 강연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정남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007년에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고 양 기관 간에 연구협력을 약속한바 있는데 벌써 제3회 공동연구회를 개최하는데 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글쎄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평가가 되겠습니다만, 특히나 충남여성개발원 쪽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아마 선두적인 역할을 우리 충남여성개발원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문제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가속화하고 계시고 또 그것들이 우리 한국민족학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그런 2~3년간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이런 연구에 매진하여주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 그 주역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이번 연구회에 공동연구 테마를 봤더니 ‘다문화 인식과 통합정책의 새로운 모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도 이부분과 연관해서 간략한 인사를 통해서 저에게 맡겨진 시간을 할애할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뭐,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사회에서 이제 “다문화라고 하는 개념” 또는 “다문화 정착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미 진부한 이야기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몇 해전만해도 이부분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져 왔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다문화가 이제는 선택적인 대안이 아니라 반드시 현

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라면 누구나가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당위적인 문제로 자리매김 정도는 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모두 노력을 했고, 또 우리 사회의 주변상황이 그렇게 변해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좀더, 우리사회가 다문화적인 정착을 내실 있게 하고 또, 그것을 위한 다문화의 갖가지 제도적인 정비가 확충되어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 됐는데, 그런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우리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다문화 인식을 어떻게 적확하게 방향 잡는가 하는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인식과 고양됨이 높은 발전을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곡해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인식이 상당히 고양됨에 따라서 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 또한 대단히 발전해 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일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곡해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의 엄청난 곡해의 첫 번째 내용의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다문화제도가 정착이 된다든가, 다문화 사회가 활짝 꽂피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국가통합이라고 하는 것과는 역행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진전되는 것도 아니냐는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얼른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하는 것도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죠?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상, 다양한 정보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사회일 텐데… 그런 것들이 점점… 발전이 되게 되면, 사회적 인통합, 국가적인 통합, 국민적인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반비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가 약해져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과정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어가는 현장을 저는 가끔 목도하고는 여기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다문화정책의 수용, 다문화정책의 제도화, 다문화정책의 심화”라고 하는 것은 결코, 특정한 국가, 특정한 국민의 어떤 분열을 초래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반대

죠. 그것의 정착이 가속화되면 될 수록 한 사회의 국가적인 통합은 더 공고해 집니다. 한 사회의 국민적인 통합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가는 것 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통합, 국가적인 통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바로 다문화정책 이외에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확고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못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문화, 다문화 너무 강조하지 말아라! 그것은 결국 사회적인 분열, 국민적인 분열, 국가적인 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 같은 나라.

우리가 말하는 그 다문화의 정도가 대단히 발전을 본 나라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따라서 그것이 다문화의 진척이 아니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판단의 규모에서 보면 미국도 대단히 앞선 다문화의 선진국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다문화주의를 발전시켜 가는 과정자체가 미국의 국가적인 통합의 정도가 저하되는 과정이었느냐.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다문화주의가 정착되어가는 과정, 다문화주의가 미국사회에서 고양되어가는 그 과정자체가 미국사회의 전반적인 국가적인 통합이 그 과정자체가 향상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최근에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만들어지고 있는 신생국가가 어떻게 하면 하루 빨리, 아주 건전한 국민적인 통합을, 국가적인 통합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하는 부분에서 대단히 고심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정책을 썼죠? 대단히 과도한 통합정책을 썼죠. 대단히 과도한 융합정책을 썼죠. 그래서 모든 문화, 모든 인간을 하나의 색깔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과도하게 해 왔었습니다. 모든 색깔의 문화나 모든 색깔의 사람들을 하나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밑에서 열을 가하게되면 그 용광로 속에 들어있던 모든 구성원들의 색깔들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으로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과도한 통합정책입니다. 인종통합정책, 문화통합정책을 과도하게 실행해 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뭐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건전한 그 사람들이 그 통합을 그런 정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려는 국가통합이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더라! 국민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긴 과정이 있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다음에 채택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문화 정책입니다. 고유하고 다양한 색깔이 우리 사회에 여기저기 존재하고 있는데, 고유한 냄새가 고유한 성격이 우리나라 여기저기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그러한 고유한 문화 그 모두의 색깔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가운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여기서 찾아내는 것이 바로 다문화 정책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은 존재하는 모든 색깔을 존칭하는 형태로서의 그 어떤 국민통합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이른바, 샐러드(salad) 빵과 같은 그 어떤 공존의 문화를 자기들 것으로 점점 더 깊이 있게 내실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아메리카니즘(Americanism)의 안정적인 고착, 안정적인 어떤 균형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그들 개개의 다양성의 한 부분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대단히 미국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메리칸이라는 것에 대한 긍지를 대단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통합과 다문화주의와의 공존현상입니다. 이것이 선택적으로 채택한 정책이지만 이것이 한나라의 궁극적인 통합성을 만들어내는 최선의 방법임을 확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만, 그중의 한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많은 문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생각하면, 대단히 성공적인 통합의 정책을 그 나름대로 구현해 내고 있는 한 나라로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단히 많은 불안한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성격, 또는 여러 가지 그 내면적인이며 역사적인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중국의 오늘을 생각해 보면, 중국의 오늘은 대단히 성공적인 통합의 정책을 만들어 내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의 중국을 있게 만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그 부분은 이웃나라 지금은 없어진 나라와 비교를 통해서 더욱 확연히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소련이라는 나라죠. 대단히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만들어내려는 작업은 소련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이것을 따라 배워서 상당히 한 30년 이후에 그 실험을 시작한 중국인데, 자기의 선생격인 소련은 결국, 국가통합의 한계에 부딪쳐서 국가 스스로가 없어져 버린 경험을 갖고 있고 그것에 비해서, 물론, 뭐. 엄격히 따지면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대체적으로 비슷한,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30년 늦게 탄생한 중국은 그런 문제를 갖고 있으면 서도 오늘날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는 살아남고 하나는 패망한 가장 큰 요인이 뭐냐! 가장 큰 승패의 갈림길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도 그것이 바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한쪽에서는 상당부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고 한 쪽 부분은 다문화정책을 “허울”로만 “명분”으로만 내걸어서 그것의 실효성을 전혀 외면해 왔기 때문에, 그 외면한 그 나라는 망하게 된 것이고 그것에 내실에 있는 발전을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중국은 지금도, 그것의 혜택으로 그 다문화주의 덕택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대단한 나랍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국세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의 이뤘던 경제적인 성취는 논외로 하고서라도 여러 가지로 내재되어 있는 그 어려운, 그 상호 모순적인 그런 그 구성요소를 가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생 중국의 탄생을 이뤄 지금까지 자기들의 각고(刻苦)의 노력을 통해서 오늘날의 안정적인 발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 정책적인 선택, 정책적인 판단이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의 요체는 무엇이냐! 다문화주의를 자기 것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다문화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공존의 철학을 철저히 인



식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을 굉장히 일찍부터 먼저 선견지명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한 어떤 현실적인 생존정책을 자기화 했기 때문에 오늘의 생존과 번영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죠, 중국. 여러분들 자주 접하는 나라니까 굉장히 세심한데까지 주의를 합니다. 다문화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세심한 배려를 합니까? 일일이 얘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 중국은 대단합니다. 어떤 소수민족 지구에 지역, 그러니까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아주 영세하니까요, 그리고 영세 할뿐만 아니라 그 소수민족을 구성하는 민족의 인구들이 대단히 학력수준이 낮고,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해 온 그 단체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가면 말은 있어도 글자가 없어요. 글자가 없는 민족단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민족단위에 대해서 중국정부가 그 소수민족에 대해서 자기들 민족 문자를 만들어 줍니다. 국가에서, 그게 보통일 입니까?

민족국가를 만들어 줍니다. 민족가요를 만들어 줍니다. 말을 만들어주고, 국가를 만들어 주고 하는 일까지 한다, 이겁니다. 그밖에, 소수민족에 대한 우대 정치는 잘 알려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아이들 중국 사람들은 한 명 밖에 못 넣는 것을 소수민족에게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수민족에게는 두 사람까지, 어떤 소수민족에게는 세 사람까지 자녀를 두게 합니다.

“엄청난 혜택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한사람 밖에 못 낳게 한다. 이게, 이게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뭐랄까요, 생리를 부인한 잔인무도한 폭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

데, 그런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제도가 소수민족제입니다.

뿐만 아니죠. 일일이 얘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소수민족 자녀들은 대학입학에서도 특례가 주워집니다. 중국에서 대학입학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는 인생역전을 인생을 역전시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대학입학시험에 합격했다는 것과는 그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중국도 요즘 경쟁이 치열해져서 과거와는 못합니다만 중국은 대학에 입학이 되면 그때부터 자기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 때부터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호구가 변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민등록지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주민등록지가 변경이 된다, 호구제가 자기가 사는 지역이 변경된다고 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 엄청난 데가 바로 대학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요즘 좀 과도기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부 공립이니까요. 전원의 취업을 국가가 알아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호구에 따라서 완전히 농촌 시골에 있던 사람이 도시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되면 그때부터 신세와 팔자가 고쳐지고 바뀌고 고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것에 더해서 중국이라는 사회에 있어서 대학이라는 역할과 또 기능이 본질적인 차원에서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중국 젊은이들에게 있어서의 대학 진학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생의 엄청난 변화를 갖는 중요한 사건이죠, 사건입니다.

그런데서 그런 소수민족 자녀들은 한족과는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소수민족 따로, 퀴터를 따로 정해서 그 사람들만의 경쟁을 만들어 한족과의 경쟁과는 전혀 비교가 않될 정도로 수월하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줍니다.

이밖에도 여럿 있죠 전통문화 보존을 위하여 특별 장학금을 준다든가 장려책을 준다든가 또는 현지 간부들을 소주민족 출신자를 기용하게 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보이고 있는 면도 있고 보이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만, 대단히 실질적인 혜택을 소수민족들에게 주고 마이너리티들에게 주고 장애자들에게 주는 그런 어떤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수민족 사회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하는 사회가 그렇게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여건상인 종여건상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물론,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날과 같은 안정을 유지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냐, 다문화주의를 이 사람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단히 깊이 있게 정착시켜 나오는 과정을 정치권이 앞장서서 지금까지도 존속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후진타오(胡錦濤)가 무슨 회의하는데도 가장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이 요즘, 후진타오(胡錦濤) 정권이 내세우는 뭐랄까요, 통치(統治) 논리의 근간이 뭐죠. 조화사회라는 것이 아닙니까, 조화사회, 무엇과 무엇의 조화입니까? 다양한 조화죠. 그러나 그 중심적인 내용 속에 민족간의 공존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가장 중심적입니다.

중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를 통해서 봐서도 우리가 무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의 국가통합이라는 것들이 개별적인 구성요소들 간의 자율적인 발전을 통해서 더욱더 가속화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국민들, 중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 그러한 정부시책 덕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만을 아는 사람이 됐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반정부적인 인사가 늘어나게 됐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여기 또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출신의 연변 등지에서 오신 우리 조선족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그분들, 한국에 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동포 아니냐! 우리 동포 맞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국적은 애국심의 지향점은 중국입니다. 한국 아닙니다! 내 말이 의심이 가면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누가 한국사람 친구와 얘기하다 중국을 욕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강한 중국인 의식을 가졌을까요 바로 중국 정부가 만들 어낸 다문화 인식 다문화인식에 근거를 한 다문화정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역설적이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국민통합, 국가통합을 만들어내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이런, 미국의 경우, 중국의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여러분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다문화 인식에 또 하나의 보호 대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앞의 얘기와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바로 다문화 사회다! 또는 다문화 정책이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그 사회의 통합을 중심으로한 거주지 문화로의 동화정책인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 시집을 왔건, 일하러 오셨건, 오신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많은 외국인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철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습니다. 전부다 이른바 다문화정책이죠 그런데 다문화정책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확인해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뭘까요.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얼을 가르치는 겁니다. 한국의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겁니다. 한국의 음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 이상을 뛰어넘는 정책은 나는 아직도 별로 찾아보지 못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정책이 가장 앞서 있다고 하는 충남 쪽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게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문화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정책 아닙니까. 다양한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어, 습관, 그다음 음식, 그리고 문화를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구성요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 색깔 그대로 존치



하나의 국기통합이라는 것들이 개별적인 구성요소들 간의 자율적인 발전을 통해서 더욱더 가속화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다문화정책 아닙니까.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에게, 베트남에서 오신 그 분들에게. 베트남에 관한 것을 일차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이 아니잖아요. 빨리 한국인 되라! 한국인 되라는 얘기는요, 한국인 되라는 것은 강요를 하지 않아도 행정공무원이 그렇게 안달을 하지 않아도 세월이 가면 자연스럽게 되요.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가급적 오랫동안 보지(保持)시키는 노력을 주변에서 도와줘야 한다예요 이것이 다문화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다문화하면서 요즘 예산도 많이 나오고 많은 공무원들이 관여를 하고, 많은 기관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한국화 되는 것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되도 한참, 잘못 된 것입니다. 민족 말살정책입니다. 이 다문화, 다문화 말살정책입니다.

길게 봐야 해요. 한국에 관한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그대로 자연적으로 습득하게 돼있습니다. 그게 무슨 다문화입니까, 한국화 시킨다. 이것은 통합정책이죠, 과도한 융합정책입니다, 용광로정책 이예요. 용광로 정책이 세계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 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성찰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니냐. 다양한 노력들은 물론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의 방향이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많은데 그 왜

곡된 부분이 늘 낳게 되는 것의 그 원인을 따져보면 풀어 이 다문화의식이 제대로 수립 돼있지 않은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라져가는 민족의 문자까지도 만들어주고, 언어가지도 만들어주고, 노래까지 만들어주고, 하는 이 판에, 여기 오는 과정에서부터 사회직장에서까지 또는 공무원세계까지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하루 빨리 한국어를 배워서, 하루 빨리 한국풍속을 익혀서, 하루 빨리 한국의 예의범절을 익혀서, 하루 빨리 완전한 한국 며느리가 되어라! 또는, 한국인 노동자가 되어라! 역방향입니다.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효과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다문화의 어떤 그 의식, 다문화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지향점이 굉장히 출발점에서부터 제대로 의 제도를 찾는, 제도를 찾는 수정을 지금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문화정책이 앞으로가 대단히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주의라는 하는 것은 개별라인의 존중, 개체성의 존중, 그것을 전제로 한 다양성의 공존입니다. 전부다 한국 놈이 돼버리면 다양성이 있을게 뭐-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무슨 다문화입니까, 아니죠, 획일화지요.

중국 표현을 쓰면, 뭐-, 다른 상황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만, 백가쟁명 백화제방(百家爭鳴 百花齊放)이 되어야 합니다. 백화제방(百花齊放)이 되어야 합니다. 백 가지 꽃들이 전부다 자기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활짝 피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다문화 사회입니다.

백화제방(百花齊放)이 아니라 백화일방(百花一放)을 강요하면, 이건 다문화고 뭐고, 그 사회자체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왜, 다문화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오니까, 시대적인 조류가 그거니까, 그 다문화적인 사회에 대응해서 하는 전략이 일문화정책으로 고정되어버리면, 다문화를 혹사시키는 결과이상이 만들어 질수가 없죠.

다문화 의식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다문화 의식이라는 것은 결코, 결코, 민족을 뛰어넘은 국가적인 통합, 또는 국민적인 통합과 역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속적인 그리고 건전한 국가통합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적인 선택 이상의 대안적인 선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다문화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다문화정책의 원의 그대로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 다양한 색깔, 다양한 냄새의 문화 그 자체를 가급적이면 그 모습 그대로 잔존시키는 노력을 측면에서 해주는 것

이 다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대단한 건전한 방침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의식을 확립할 때 비로소, 이 땅에, 이 땅에 떨어진 씨앗이 이 땅의 공기를 숨 쉬고 이 땅에 흙을 자기 토양분으로 해서 대단히 왕성한 어떤 그 생육(生育)점을 통해서 건전한, 아주 그 튼튼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대단히 풍성한 다문화의 과실을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낙지생근(落地生根)이라고 하는 이민사회를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일 수 밖에 없습니다. 떨어진 땅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정책 이상의 정책은 없죠?

다문화정책이라는 것이 이것은 국내에 있는 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외국에 나가있는 자국민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중심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현지 중심주의가 되려고 하면, 공존의식으로 무장한 주변세력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주변세력이 공무원일수도 있고, 연구인 일수도 있고, 우리들 일선 뭐라고 할까요, 학회 같은데 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서류상으로는 문헌상으로는 잘 알면서도 현실 정책에 있어서는 잘못된 방향에서 크게 탈피하고 있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문화정책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특히 더 유념해 나가면서 피치 못하게 다가오는 다문화사회의 내실 있는 성장과 다문화의 내실 있는 대화 그리고 다문화사회의 내실 있는 추수를 하는 그런 기쁨을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